

‘트럼프 대세론’ 흔들리나... 변수는 주류 단일화

트럼프, 20일 경선서 40% 못 넘어

공화당 트럼프-루비오-크루즈 3파전

내달 1일 ‘슈퍼화요일’ 최대 승부처

20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치러진 이후 미국 공화당 대선판은 도널드 트럼프-마르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간의 3파전으로 굳어졌다.

3자 모두 경선결과를 유리하게 해석하며 승기를 잡았다. 공화당 지지세가 높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중대한 물음표에 직면해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연이어 대승을 거둔 트럼프는 여전히 ‘과반의 벽’을 넘지 못하는 불안한 1위이고, 2위에 치고 오른 마르코 루비오는 조속히 주류 단일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큰 숙제다.

◇40% 천정 못 뚫은 트럼프=트럼프는 이번 경선에서 32.5%로 2위인 루비오를 10% 포인트 차로 크게 따돌렸다. 그러나 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10차례 치러진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낮거나 두번째로 낮은 1위 득표율”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여전히 전국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이고 앞으로 슈퍼화요일 경선에서도 단연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30%대의 1위로는 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도 사퇴한 켈 부시에 이어 3월 중순께 거취표명이 예상되는 존 케이스의 표가 루비오나 크루즈에게 몰린다면 판이 미묘해질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의 연승 행진으로 ‘주류의 저항’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루비오를 ‘대항마’로 세우면 트럼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화’ 급한 루비오-케이스 변수=루비오는 이번

에 2위에 오르면서 당 주류를 대표하는 단일후보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 루비오로서는 ‘단일화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문제는 주류 군소 후보인 존 케이스 오하이오 주지사가 적어도 3월 중순까지 경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점.

자신이 주지사로서 있는 오하이오주 경선(3월15일)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7.6% 득표율로 5위를 기록한 케이스는 3월8일 미시간 주 경선에 ‘출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루비오로서는 크루즈의 ‘건재’로 현 3파전 구도가 이어질 경우 단일화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집 사우스에 승부 건 크루즈-기독교 표심 얻을까=남부침례교인인 크루즈로서는 이번에 3위로 밀려난 것보다 ‘믿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대만큼의 표를 얻지 못한 게 뼈 아픈 대목이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교인의 31%가 트럼프에 표를 던졌고 크루즈는 27%를 얻는데 그쳤다. 수개월간 현지 교회에배에 참석하고 최소 300명이 넘는 목사들의 공개 지지서를 얻은 크루즈로서는 당혹스런 패배다. 이는 이들 교인 가운데 대학 졸업장이 없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독교 표심은 최대 승부처인 3월1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이 크다. 앨라배마, 아칸소, 콜로라도, 조지아,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등 남부 7개 주는 기독교 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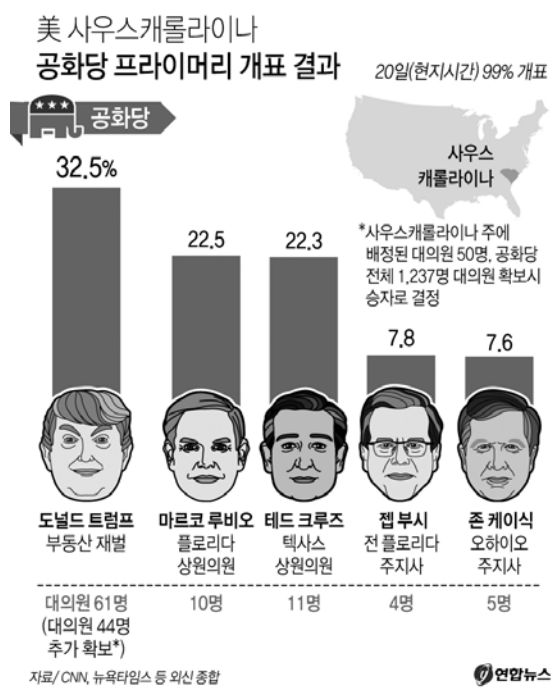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❷ 실패한 복고주의자 왕망

왕망(王莽 BC 45-AD 23)은 산둥성 출신으로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新) 왕조를 세웠다. 극단적인 복고주의자라 주나라를 모델로 한 이상적인 왕조 건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과 유리된 정책과 상식을 벗어난 기행으로 왕조의 명을 단축해 실패한 이상주의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집안은 전한 후기의 대표적 권문세가다. 그는 원제의 외가쪽 사람이다. 원제의 황후는 왕정군으로 원후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생인 유오가 즉위하니 성제다. 20세 즉위해 26년간 재위에 있었는데 조세 재정의 미모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

그는 원후의 조카로 일찍이 아버지가 죽어 열후가 되지 못해 초년 시절은 불우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원후덕에 성제 말년에 대사마가 되었다. 애제가 26세에 요절하자 원후는 9세인 평제를 즉위시키고 그가 섭정토록

리에 올라섰다. 종신들은 그에게 황제가 될 것을 권했다. “왕망에게 제위를 양보한다”는 글들이 발견되는 등 황제 등극을 위한 여론전을 폈다. AD 8년 황제가 되어 국호를 신으로 바꾸었다.

새 왕조는 겨우 15년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격동의 15년이었다. 그는 중국 사상 최초로 선양을 통해 황제가 되었다. 국호를 신으로 정한 것은 그가 신야후라는 열후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조의 이름과는 달리 그는 철저히 복고주의적 정책을 채택했다. 관제, 관명도 고래의 것을 썼다. 극단적인 형식주의자라 할 것이다. 농업을 중시해 상업은 경시되고 한무제때 채택된 철, 소금의 전매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여러 차례 화폐를 주조해 대전 소전 도 포 등 28종의 화폐를 발행했다고 한다. 지방과 관명을 계속 고쳐서 세금 징수나 부역 동원 등 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원래 지방으로 되돌리는 등 혼란이 계속

15년만에 新왕조 몰락 부른 급진개혁

되었다. 젊은 시절 공손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유학자의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조정 안팎의 신망을 받았다. 특히 조카 왕망 양자로 삼아 친자처럼 보살피며 관후정대한 선비라는 이미지가 구축에 성공했다.

그는 보정대신의 신분으로 실권을 장악했다. 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종신을 파면해 권력을 공고히 했다. 조정내 왕망 세력은 황태후에게 그를 안한공에 봉해줄 것을 주청하였다. 그는 봉호만을 받고 봉지는 반납해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AD 2년 가뭄으로 기근이 들자 각지에서 농민 소요가 일어났다. 그는 백만전의 돈과 삼십경의 토지를 내놓고 이재민 구제에 앞장섰다. 황태후는 크게 감동해 2만경의 땅을 하사했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삼복들을 각지에서 보내 친왕망 여론을 조성했다. 그에게 더 많은 봉지를 내려달라고 상주한 사람이 무려 48만명을 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스캔들에 연루된 자신의 아들 왕우와 왕획을 자살시키는 등 성인 왕망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했다. 어린 평제를 독살해 두살 짜리 유영을 황태자에 앉히고 스스로 가(假)황제의 자

되었다. 관계가 개선된 흉노와의 관계도 다시 악화되었다. 왕으로 칭하던 흉노의 지도자를 후로 격하시켜 흉노의 원성을 초래했고 국경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토지와 노비의 매매 금지 정책이아 말로 그를 몰락시킨 결정적 패착이었다. 토지 국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후 대신 서민들은 계속 토지와 노비를 매매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으므로 지지세력의 결정적 균열을 가져왔다.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가 명문 지방 호족 출신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치된 토지와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거두어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도처에 유민이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비현실적 정책은 부정부패와 다수 농민의 기근을 초래했다.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자 녹림군 적미군 등 반란 세력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18년 장안에 집권한 두오 군에게 살해되어 시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는 주나라를 모방해 이상적 도덕사회를 건설하려 했지만 오히려 세상을 혼란에 빠트렸다. 그의 몰락은 민생을 도외시한 사비대 이상주의자의 예정된 결말이었다.



시리아 도심 잇단 유혈사태...120여명 사망 21일(현지시간) 시리아 중부 도시 홀스의 친정부 지역에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했다(사진). 같은 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시아파 사원 사이다 제이나브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최소 62명이 숨지는 등 이날 1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中 매체 “시진핑, 언론 장악 수순 밝기”

3대 관영 언론사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19일 인민일보와 관영 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등 3대 관영 언론사를 방문한 것은 군에 이어 언론을 장악하려는 서곡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은 3대 매체 방문에 이어 즉각 ‘신문여론공작좌담회’를 개최하고 선전공작을 총괄하는 당 중앙선전부를 비판함으로써 ‘여론 진지’의 완전 점령에 나서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미국에서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訊)이 21일 보도했다.

시 주석의 이번 언론사 방문은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한 당 중앙판공청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 언론 개혁 등 중대 조치를 예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신은 전했다.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은 시 주석의 방문 1주일전 3대 매체 사장에게 시 주석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준

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주석의 언론사 방문에는 정국상무위원회에서 사상·선전을 담당하는 류원산 위원과 류치바오 선전부장외에 시 주석의 측근인 황쿤밍(黃坤明) 선전부 상무부부장이 수행원으로 발탁된 점이 주목된다.

정통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언론사 방문은 2013년 4월 전국선전부장 회의 직후와 작년 문에공작각담회 때 이어 3번째이며, 사상·선전 전선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여론 부문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으며, 사상과 여론 주관 부문들이 선의는 있으나 틀린 일을 하거나 아예 고의로 해로운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언론사 방문과 좌담회 개최 이후 중국 당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장악력을 제고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났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개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